

‘조장’ 이준석 대표는 성폭력 논할 자격 없다

이준석 대표가 미투운동을 폄하하고 성폭력 가해자 옹호 발언을 한 김건희 씨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논커녕, 오히려 성폭력 문제를 왜곡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최근 방송된 통화 내용에서 김건희 씨는 “안희정이 불쌍하더라”이라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를 오히려 감쌌다. 또한 “미투가 터지는 게 다 돈을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것 아니냐”라며 구조적인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변화의 물결인 미투운동을 폄하했다.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성폭력에 대한 위험한 인식이 그대로 담겨있다.

미투운동을 폄하한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적 여론 또한 거세다. 안희정 사건 피해자는 2차 가해의 씨앗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여성본부 고문을 맡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마저 사과하고 고문직 사의를 밝혔다고 한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억지논리로 김건희 씨의 문제를 왜곡하면서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 특히 김건희 씨의 발언에 대해 “2차 가해란 표현은 성립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라고 단정한 것은 오만함을 넘어 모욕적이다. 이대표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여성혐오와 갈등을 선동하면서 국민을 분열시켜온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는 실명을 걸고 김건희 씨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가 느낄 분노와 고통을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이준석 대표와 김건희 씨는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미투운동에 담긴 사회 변화를 성찰하기를 바란다.

2022 1월 1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장 정춘숙